# OPP 필름 및 CPP 필름 시장 동향

Market Trend of OPP Film&CPP Film

## OPP 필름

OPP필름은 높은 기계적 강도, 유연성, 내핀홀성, 가스배리어성, 내열 및 내한성이 뛰어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뛰어난 기계적 강도와 유연성은 인쇄적성을 좋게하여, 포장인쇄에 우수한 적성을 나타내며, 또한 투명성과 광택이 뛰어나 수산가공식품, 육 가공식품, 냉동식품, 면류 포장과 Baloon 제품 등에 사용된다

PP(Poly prophylene)를 일축 또는 이축으로 연신을 하여 제조한 필름을 OPP필름 이라고 하는데 OPP film은 투명하며 광택이 있고 우수한 방습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빙과, 스낵, 쿠키 등의 방습성 식품에서는 포장재의 다양화와 더불어 고방습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장재료도 Heat-Sealable OPP, PVDC Coated OPP/CPP, OPP/증착 CPP 등의 증착필름 사용구성 등 재료구성에 있어서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다.

용도(oriented polyoropulene : OPP)로는 투명성 및 표면광택도,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각종 스낵류, 빵류, 라면류 등 각종 유연포장의 인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방담성(anto-fog)을 갖도록 처리된 방담필름은 과일이나 채소포장에 이용되며, white 필름이나 pearl(펄) 폴리프로필렌 필름은 기존의 종이대용이나 흰색 인쇄 대용으로 빙과류나 초콜릿 제품류에 사용된다.

이러한 White 필름이나 펄 필름은 일반적인 폴리프로필렌 필름과 달리 기공층이 형성되어 밀도가 0.56~0.65 사이로 단위무게당 표면적 넓이가 크다.

그 외 최근 폴리프로필렌 특유의 표면광택성을 표면 개질을 통하여 무광택으로 제조한 무광택 필름은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식품포장 및 쇼핑백 등에 사용되고 있다.

포장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OPP필름은 유럽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수요둔화, 내수 심리 위축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대량 생산되던 수요가 점차 기능화 되면서 소량화, 소포장 변화로 인해 포장용 필름의 판매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환율, 국제 원자재가의 변동,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유입 등 필름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름 시장은 시장의 과당경쟁과 중국 시장의 침체, 유럽의 경제 악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표 1〕 OPP 필름 생산판매 현황 (단위 : 톤/년)

| 업체명 | 라인수 | 생산능력 | 공급량 | |
|---|---|---|---|---|
| | | | 수출 | 내수 |
| 대림산업(주) | 2 | 25,000 | 3,500 | 19,000 |
| (주)삼영화학 | 4 | 35,000 | 4,126 | 16,164 |
| 율촌화학(주) | 2 | 16,000 | 2,400 | 13,600 |
| 자강산업(주) | 1 | 9,000 | 1,000 | 3,587 |
| (주)필맥스 | 3 | 27,600 | 6,000 | 18,000 |
| (주)화승인더스트리 | 3 | 30,000 | 12,000 | 18,000 |

있으나 신제품 개발 및 기능성 제품의 출시와 수출물량의 증가로 인해 한숨 돌리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장기 침체와 최종 사용자들의 가격 인하 압박으로 고통은 더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OPP 필름 시장은 2010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에 힘들어하고 있다.

대림산업(주)은 포장용이 20%대, 인쇄용 10%대, 기타 60%대로 예전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개라인의 생산능력은 2만5천톤으로 수출 3천5백톤, 내수 1만9천톤 정도로 최근 2~3년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삼영화학은 4개라인 생산능력이 3만5천톤인데 수출 4,126톤으로 2010년 대비 22%가량 줄었고 내수는 33.8%가 감소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이는 유럽 경기둔화와 중국 등 저가제품과의 가격 경쟁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역시 해외 수요감소, 환율하락, 불안정한 원료가격 등 3중고로 수출의 난항이 예상된다.

율촌화학(주)는 2개라인 1만6천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수출 2천4백톤, 내수 1만3천6천톤으로 2010년에 비해 수출은 26% 늘어난 반면 내수는 16% 줄었다.

이는 식품, 제과업체의 매출부진으로 OPP 업계에 영향이 크게 미쳤고 테이프 완제품 수입 증가로 테이프 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율촌은 연말에 BOPP 신규라인 1대를 증설할 계획인데 연간 3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가동은 2013년부터 시작한다.

자강산업(주)는 1개라인 생산능력 9천톤으로 올해 상반기 수출이 1천톤, 내수가 3천5백87톤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강산업 역시 전년도 대비 올해 생산 및 매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류별로는 인쇄용, 섬유포장용, 합지용, 테이프용, 기타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주)필맥스는 해외 및 국내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3개라인에서 2만7천6백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6천톤, 내수 1만8천톤을 판매하고 있다. 인쇄용, 테이프용, 합지용, 봉투용, 기타용으로 부문별 판매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며 전년대비 변화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용, 섬유용, 콘덴서용, 테이프용, 함성지, 합지용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 판매에 나서고 있는 (주)화승인더스트리는 3개 라인 3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2천톤을 수출하고 1만8천톤을 내수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화승 역시 국내외 경기침체와 소비시자의 변화로 판매물량 감소를 겪고 있다.

OPP 필름업계는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올해 들어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필름 소비량 감소 해외 수출 감소, 국내 가격 경쟁력 저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15~20%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 CPP 필름

CPP필름 역시 OPP필름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급과잉과 유저들의 가격인하 요구로 인한 고통과 수출시장의 침체와 내수시장의 침체가 맞물려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수출량 증가와 사용처 개발로 판매에 활기를 찾았던 CPP업계는 지난해 소비위축으로 인한 내수 감소, 수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이어져 시장이 위축된 반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판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2011년 들어 국제경기의 침체와 저가제품의 대량 유입 등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올 들어 더욱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CPP 생산업체의 생산능력은 14개 라인에서 5만2천5백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2010년과 동일한 규모이다.

〔표 2〕 CPP 필름생산 판매 현황 (단위 : 톤/년)

| 업체명 | 라인수 | 생산능력 | 공급량 | |
|---|---|---|---|---|
| | | | 수출 | 내수 |
| 삼민화학공업(주) | 3 | 12,000 | 1,000 | 11,000 |
| (주)삼영화학 | 1 | 3,720 | 218 | 2,348 |
| (주)성일화학 | 3 | 3,400 | 150 | 3,250 |
| (주)유상 | 4 | 10,000 | 1,500 | 8,500 |
| 율촌화학(주) | 1 | 10,000 | 2,000 | 8,000 |
| (주)필맥스 | 2 | 8,400 | 1,400 | 7,000 |

삼민화학공업(주)은 3개라인에서 1만2천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에는 수출량이 줄어 거의 미미한 실정이며 내수도 10% 정도 줄어들었다. 올해역시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내수 판매가 줄어들고 있어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 구상에 나섰다.

(주)유상은 2010년 생산능력을 늘렸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4개라인에서 1만톤의 생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상은 수출량과 내수 물량이 조금씩 줄었고 앞으로의 전개 역시 밝지 만은 않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은 식품용 필름의 감소와 타겟으로 삼은 산업용 소재의 활로에서 급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연말에는 식품 및 산업용 소재의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주)성일화학은 3개 라인에서 9천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수출 1백50톤, 내수 3천2백50톤으로 2010년 대비 수출 40%, 내수 23.5%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하반기 물량의 증가분을 감안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경기 흐름을 보았을때 크게 변동되진 않은 전망이다.

그렇지만 성일은 내수물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모회사의 꾸준한 성장으로 하반기 물량 증대를 기대할만하다.

(주)삼영화학은 11개라인 3천7백20톤의 생산능력으로 전년대비 생산능력이 감소했으며, 수

출 2백18톤, 내수 2천3백48톤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5%의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율촌화학(주)은 1개 라인 1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여 전년대비 1천톤의 생산능력 증가를 보였고 수출 2천톤, 내수 8천톤으로 수출량이 늘어난 반면 내수가 줄었다.

2개라인 8천4백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필맥스는 수출과 내수 모두 전년대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침체의 조짐이 보였던 CPP필름 시장에 올들어 급격한 내수부진으로 업체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OPP, CPP 필름업체들의 여러 가지 판매부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우선 유럽의 위기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 스낵, 건과 수입업체들의 포장 완제품 수입, 소비자들의 알뜰구매 등이 겹쳐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저가품(중국, 대만 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로 국내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 국가적인 국내시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상반기 필름 소비량 감소 및 업체별 과열경쟁이 예상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필름업계가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없는 한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변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OPP, CPP 필름 업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이며 정부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